

군산 강소특구 성과발표회 ‘성황’

2024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성과 · 2025년도 사업방향 제시 등

2024년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성과와 2025년 사업방향 제시를 위한 성과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6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는 김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군산대학교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유공자 표창 △강소특구 우수성과 기업 표창 수여 △우수기업 및 기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 △2024년에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현판 수여 △강소특구 성과홍보 및 추진전략 △강소특구 혁신기관 협력 퍼포먼스 △수혜기업 홍보부스 참관 등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혁신기관 간 협력 교류를 강화했다. 군산 강소특구는 지난 2020년 특구로

지정된 이후 기술핵심기관의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혁신기관과 협력연계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 지금까지 연구소기업 설립 28건, 기술이전 180건, 신규창업 45건, 투자연계 475.91억 원을 달성했으며, 특구 내 입주기업 또한 200여 개로 증가하였다. 해외 수출 관련해서는 품립과마텍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5,000만불 계약성사를 이루는 한편, Value-up 기술 지원을 받은 더네스트와 에이피솔투션이 베트남 수출 37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작년 11월에는 군산에 보급자리를 틈 스펀스애펬이 과기부로부터 첨단 기술기업으로 지정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다년간의 성과와 실적을 인정받아 2024년에는 군산 강소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었다. 올해 군산시는 △특화 분야 수요 기반 유망기술 발굴 연계△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및 기업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지역 특화 분야 육성지원 등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지역 주도형 혁신성장 시스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최우수 강소특구로 지정된 것은 기업과 지역혁신기관 모두 군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과 연계하여 EV배터리 전후방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시설 생활인에 위로 전하고,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

정현을 익산시장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을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날 정 시장은 장애인시설인 ‘새소망단기보호시설’을 시작으로 △아동양육시설 ‘이리보육원’ △노인요양시설 ‘원광실버의집’ △아동양육시설 ‘기독삼애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설을 맞아 시설 생활인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정시장은 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시설 생



활인을 가져처럼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새해 안부 인사를 나눴다. 정현을 시장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외롭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손길에 절실히 필요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과 단체, 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클로바 케어콜’ 로 고독사 예방한다

익산시 · 네이버클라우드, 협약... AI 기술 활용 돌봄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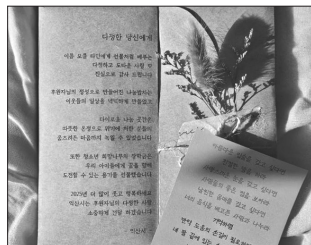
익산시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의 외로움 해소와 사회적 고립 예방에 집중한다. ‘익산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옥상훈 네이버클라우드 리더 등이 참석했다.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로 건강과 일상 생활을 돌보는 서비스다. 인공지능은 대상자와의 지난 대화를 기억해 맞춤형 대화를 제공하고, 정서적 공감으로 따뜻한 말벗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에는 클로



바 케어콜의 돌봄 복지 분야 활용에 협력하고, 익산시는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중장년 1인 가구와 고립 은둔 청년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위기 징후 발견 시 즉각 대응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희망복지사업 후원자에 감사 서한문 전달

익산시는 16일 희망복지사업에 후원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시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복지사업으로 다 이로운 나눔공간과 익산행복나눔마켓 · 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엔 발송된 서한문에는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또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후원되는 성금과 성품을 도움 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새만금산단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구축을”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 5분 발언 진행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16일 제 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리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은식 의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차전지 산업은 군산과 전북 경제를 견인할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며 이에 발맞추어 군산시는 2023년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으나 이차전지 산업은 ‘실과 바늘’처럼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이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 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은 고열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되다 보니 이차전지 기업이 가동되면서 새만금 바다 환경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올해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 관로 구축 지원 예산이 255억이 편성되어 있다며 이 예산에 따르면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고열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후 공동관로를 이용하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에 폐수를 방류할 경우 군산 새만금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방류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포함에서 확인

되었는데 포항은 이차전지 전용 공공 폐수장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새만금 산단 입주 이차전지 기업 면면을 살펴보면 포항보다 우리 지역이 훨씬 더 많은 폐수 배출이 예상된다며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폐수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이차전지 폐수는 해양 환경 오염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위협적이어서 환경권 보호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2024년 7월 기준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3개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이미 5개 기업은 가동되고 있으며 1일 폐수량은 659㎥씩 발생하고 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된 점을 강조한 바 있고 또한 환경부를 대상으로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이 현행법상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서 빠진 입법부족위 현황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수용한 환경부

는 작년 12월 5일부터 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바닷물의 염 성분을 포함한 폐수 방류 기준을 마련한 부분은 희망적이라고 했다. 서은식 의원은 군산 새만금 지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안전한 폐수 처리시설 구축이 군산시의 중요한 추진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군산시장에 2025년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신산업인 이차전지 첨단산업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제 그 포부에 대한 실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준비가 바로 이차전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즉 이차전지 기업이 바라는 좋은 환경이 바로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장 신설이라고 하면서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과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차전지 기업 전용 공공 폐수처리장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가동하여 줄 것, △우리 지역 바다 환경을 지키고, 이차전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내달 1일부터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2012년생 청소년(2025년 중학교 예비 입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포함)들의 군산시 무상교통 지원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군산시는 2007년 ~ 2012년 출생했고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중 · 고등학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교를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신청할 수 있다. 교통카드 신청은 군산시 무상교통 누리집(<https://freebus.gunsan.go.kr>)을 통해 회원 가입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무상교통혜택은 군산지역 시내 · 마을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실제 버스를 이용한 교통비를 정산해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해준다. 지원 비용은 월 최대 5만 원 한도이다. 단, 스카드 수령 후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카드등록을 완료하고 △버스 승차차지 전용 교통카드를 반드시 태그해야 교통비 지원이 된다. 따라서 카드 수령 시 함께 동봉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행정과(☎063-454-3786 ~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농촌지도사업 추진

익산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지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농촌지도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농촌지도사업은 △인력육성 △농촌지원 △과거농촌 △식량작물 △소독작물 등 8개 분야 총 59개 사업에 약 65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중점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선진농기술도입, 밀 · 콩 작부체계도입, 기후 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안정생산시범 등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해당 사업별 신청기준에 맞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마을 단위로. 익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사업내용을 확인해 농업기술센터 사업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 · 금당 · 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